



아주엔

인터뷰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20

“IR은 소통의 예술... 창업부터 상장까지 컨설턴트 책임집니다”

아주초대석 한현석 서울IR 대표

IPO 앞둔 기업에 관문같은 존재... 축적된 노하우로 차별화 서비스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참석·직원들과 실무서 발간도

“창업부터 상장, 그 이후까지 컨설팅하는 사업을 3년 전부터 준비했다. 누구보다 빨리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대비해온 것이다.”

22일 한현석 서울IR 대표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만났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기업설명(IR)은 기업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삼는다. 기업가치는 실적이라는 유형요소와 기술력 같은 무형요소를 합친 개념이다. 그래서 한현석 대표는 기업가치 평가를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평가한다.

2017년 서울IR은 20주년을 맞았다. 서울IR은 상장을 앞둔 기업이라면 한 번씩 거치는 관문과 같은 존재다. 국내 최초 IR 업체로 IR 표준을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한현석 대표가 견본 첫마디도 “지금까지 IR업계를 선도해왔다”였다.

◆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은 IR업계에서도 큰 이슈다. 골자는 성장·혁신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을 늘려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모험자본시장 확대는 IR업계에 호재다. 한현석 대표는 “이런 흐름을 예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창업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IR은 창업부터 상장, 그 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라인업을 갖췄다.

지주회사 격인 서울IR네트워드는 프리 기업공개(IPO), IPO에 대한 IR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서울IR파트너스와 서울IR인베스트먼트는 서울IR네트워키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기업 인수합병(M&A)을 각각 컨설팅한다. 서울IR디자인은 IR 책자 제작을 지원한다.

한현석 대표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별 전문화를 추진했다”며 “4개 법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컨설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은 대기업에서 벤처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일으켜왔다. 실력을 갖춘 기업은 M&A나 IPO를 통해 더 큰 시장으로 나간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셈이다.

한현석 대표는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탈(VC) 투자에서 상장에 이르는 단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며 “반면 VC 투자 이전 단계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앞으

로 VC 시장은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진정성과 실력으로 차별화
IR은 소통이다. IR업체는 기업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정보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교류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에게 올바른 기업가치를 전달할 수도 있다.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일은 복잡하다. 실제로 IR업체에 문의하는 기업 가운데 자기 회사 가치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서울IR은 2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현석 대표는 ‘진정성’과 ‘실력’을 강조했다. 그는 “실력이 없으면 진정성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며 “이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직원 세 명을 미국에서 영입하는 IR컨퍼런스에 파견한다”고 말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 트렌드를 알면 국내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가를 미래에 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는 직접 직원 두 명과 같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참석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주총은 전 세계 주주 4만 명이 모여 경영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현석 대표는 “국내 상장사도 주주와 더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총을 유도하고 싶다”며 “IR 측면에서도 색다른 주총은 회사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IR은 ‘직원들의 생생한 IR스토리’라는 실무서를 발간했다. 국내에 IR 이론서는 한두 권 있었으나 경영을 바탕으로 한 실무서는 처음이다. 책 제작에는 2년이 걸렸고 모든 직원이 참여했다. 각자 주제를 정해 글을 작성했고 책 표지와 제목 결정도 모두 직원이 주도했다.

한현석 대표는 “모든 직원이 일당백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발간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피드백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russa@ 사진=서울IR 제공

한현석 대표는

한현석 서울IR 대표는 ‘대한민국 기업설명(IR) 1세대’로 불린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IR에 뜻을 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의류분야 수출기업인 한세실업에서 14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장인이다.

IR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는 1998년 한세실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부터다. 그는 한세실업에서 IR 업무를 총괄하며 비전을 발견했다. 한현석 대표는 “그 시절에는 IR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며 “내가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직접 투자자를 만나 회사를 소개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1999년 그는 공동창업자로 합류하며 서울IR과 인연을 맺었다. 한현석 대표는 이직하면서 급여의 반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반토막이 난 월급에 대해 아내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웃었다.

그리고 절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힌주어 말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꿈을 실현하는 중이며 회사도 성장하고 있어서다. 또한 국내 IR의 기틀을 잡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2008년 서울IR을 완전히 인수한 그는 현재 10번째 경영해오고 있다. 한현석 대표는 창의적이고 즐거운 기업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7~8년 전만 해도 ‘플러스’ 방식

의류기업 직장인서 공동창업자 7년 근무자, 10일간 유급휴가 창의적·즐거워 근무환경 노력

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고백했다. 성과가 나오질 않자 조직 문화를 과감히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행복팀’이다. 직원 다섯 명이 참여하고, 분기별로 한 사람씩 인원을 바꾼다.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행복팀은 조직문화와 제도를 논의한다. 여기서 모인 의견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된다.

한현석 대표는 금전적으로 무리가 없고 회사 운영에도 영향이 없다는 게 더 수월했다고 한다. 실제 건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는 총 15개다.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재택근무와 조기퇴근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다. 전날 메시저로만 부서장에게 알려 주면 따로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장기근속자에게는 연식별 휴가도 주어진다. 근속연수에 3년, 5년, 7년을 채우면 각각 3일, 7일, 10일가량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방식이다. 한현석 대표는 “지금도 행복팀을 꾸준히 아이템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는 자유로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IR은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익의 2~3%가량을 기부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잡아 놓았다. 모든 직원은 해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봉사활동에 나선다. 저열에는 ‘사랑의 연탄 배달’도 실시한다. 이승재 기자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현우(1973.6.22.생), 최후주속: 왕인숙(1973.6.22.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박정호(1970.06.11.생), 최후주속: 박정호(1970.06.11.생) 등</p>	<p>분묘개장공고(1차) 장사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한다</p>	<p>자 본 갑 소 공 고 본 회사는 2018년 0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20,000,000주(보통주 18,880,000주, 우선주 1,140,000주) 중 총 19,800,000주(보통주 18,680,000주, 우선주 1,140,000주)를</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박종현(1971.11.11.생), 최후주속: 왕 박종현(1971.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승현(1973.11.11.생), 최후주속: 왕 김승현(1973.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현우(1973.6.22.생), 최후주속: 왕인숙(1973.6.22.생) 등</p>	<p>분묘개장공고(2차) 장사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한다</p>	<p>자 본 갑 소 공 고 본 회사는 2018년 0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20,000,000주(보통주 18,880,000주, 우선주 1,140,000주)를</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박종현(1971.11.11.생), 최후주속: 왕 박종현(1971.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승현(1973.11.11.생), 최후주속: 왕 김승현(1973.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현우(1973.6.22.생), 최후주속: 왕인숙(1973.6.22.생) 등</p>
<p>금준출물지구 주택개발경비사업조합 공고 제2018-1호 금준출물지구 주택개발경비사업조합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p>	<p>분묘개장공고(3차) 장사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한다</p>	<p>자 본 갑 소 공 고 본 회사는 2018년 0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20,000,000주(보통주 18,880,000주, 우선주 1,140,000주)를</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박종현(1971.11.11.생), 최후주속: 왕 박종현(1971.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승현(1973.11.11.생), 최후주속: 왕 김승현(1973.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현우(1973.6.22.생), 최후주속: 왕인숙(1973.6.22.생) 등</p>
<p>금준출물지구 주택개발경비사업조합 공고 제2018-2호 금준출물지구 주택개발경비사업조합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p>	<p>분묘개장공고(4차) 장사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한다</p>	<p>자 본 갑 소 공 고 본 회사는 2018년 0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20,000,000주(보통주 18,880,000주, 우선주 1,140,000주)를</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박종현(1971.11.11.생), 최후주속: 왕 박종현(1971.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승현(1973.11.11.생), 최후주속: 왕 김승현(1973.11.11.생) 등</p>	<p>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왕 김현우(1973.6.22.생), 최후주속: 왕인숙(1973.6.22.생) 등</p>